

투데이 칼럼

전북은 ‘5극 3특’ 체제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만들어진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지난 9월에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방대한 국정 로드맵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단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 목표이다. 이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중앙 정부는 지방의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국정 49호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제주, 강원과 함께 전북을 ‘3특’으로 지정하고 이를 5극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특화 성장 지역을 조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의 구체화로 해석된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정과제 51호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계획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2025년 하반기에 즉시 실시될 예정이고, 2026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7년부터는 청사 일차나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신속한 지방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정주 패키지를 지원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혁신 성장 거점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북 발전의 핵심 중추는 의심할 여지없이 새만금 도약 계획에 있다. 새만금은 RE100 산단 조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과 직결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속도감을 더할 전망이다. 수상 태

양광 1·2단계(2.7GW)는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과 연계하여 가동되며,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도 신속히 추진된다. 특히, 서해안 HVDC(고압 직류송전)의 조기 구축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은 전력망 접속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남권의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설정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도 적기에 조성되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재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를 통해, 5극 3특 지역 수요에 맞춘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고려한 창업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이 특례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에 국가산단 조성 계획 포함)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전북에 있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통한 정책적 우위와 새만금이라는 미래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전북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발판 삼아, 자치분권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대한 시한대에 서 있다.

전북이 이대로 현상에 안주하여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이루어 전북 르네상스의 시대를 만들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우리 전북도민 모두의 몫이다.

사설

비운의 여성 혜경궁 홍씨

조선시대 혜경궁 홍씨는 모진 세월을 뚫고 아들인, 정조를 왕위에 올린 훌륭한 어머니였다. 홍씨는 1735년 서울 거평동(오늘날 서대문 밖 평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흥봉한(洪鳳漢)이다. 사돈지간이 될 흥봉한과 영조의 출발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홍씨는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하였다.

노론 집안 출신이라는 가문 배경은 그녀를 세자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칼처럼 일생 동안 짊어져야 할 운명이기도 했다.

장래 그녀의 남편이 된 사도세자와 홍씨는 1735년생으로 동갑내기였다.

1743년 9세가 된 사도세자는 유교의 성인식인 관례(冠禮)를 치렀다.

한편 여러면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영조는 특정 지식들에

대한 편애가 심한 아버지였다. 사도세자는 사실 영조가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영조와 사도세자는 점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이로 변해갔다. 세자는 율화증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했다. 결국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불우한 삶을 마감했다. 혜경궁 홍씨가 환갑이 되던 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으로 행차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32년 만에 남편의 무덤인 현릉원(顯陵園)에 간 것이다.

실로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얻은 보상이었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 사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1815년(순조 15) 81세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사연 많은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한중록’을 남겼다.

MBC NEWS 유튜브브 600만 명 시대

유튜브 ‘MBC NEWS’는 6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국내 방송사 최초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MBC는 지난 10월 7일, 유튜브브 ‘MBC NEWS’ 구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8일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2020년 12월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한 이래, MBC NEWS는 지난해 7월, 24시간 뉴스 채널 YTN을 제치고 국내 유튜브 뉴스 채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압도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41개월 연속 월간 조회수 1위라는 기록이 자리하고 있다. MBC는 기존 지상파 뉴스 유통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이 뉴스’, ‘끝까지 LIVE’ 등 실시간성이 강한 콘텐츠와 ‘뉴스zip’, ‘핫이슈PLAY’ 등 뉴스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디지털 뉴스 시청 유입을 꾸준히 확대한 것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 MBC 뉴스는 신뢰에서 출발한 성장의 무게를 강조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서 3년 연속 국내 언론 신뢰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123 사태, 탄핵, 대통령 선거 등 건박한 이슈에서 시청자 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구독자 수의 확대를 넘어서, 뚜렷한 신뢰의 언어가 통하는 곳으로 디지털 뉴스의 미래를 넓혔다.

방송의 경계가 해체되고, 정보의 흐름이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다. ‘MBC NEWS’는 실시간 뉴스와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신뢰의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ICE, 뉴욕에서 꺼져”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 단속 이후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으라차차, 넘어간다”



21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남부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열린 ‘신디 밀라크리’ 전통 레슬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합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